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이 배 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된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출구전략은 막연하기만 하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보유로 인한 불안 가중, 남북 간의 대립과 불신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시간이 갈수록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의 간격은 커지고 있다.

그로인한 남북한의 이질화는 이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및 언어의 이질화, 가치의 이질화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교류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호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다.

## 의료칼럼

## 한반도 통일을 향한 사회 문화 교류의 과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에 선언은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여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중대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당위론적 통일의 주장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더불어 상호신뢰의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은 물론이다.

앞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이질화의 극복 방안으로 다음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전제 안에서 민간교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1세대가 타계하고 2세대 시대로 들어서면서 서로의 동질감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 가족과 친지방문이 상호 확대되어 서로의 동질감을 인식해야 한다. 서신의 왕래, 문화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한 동질성의 확보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과파된 우리 전통문화도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조사

및 복원에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은 세계화 추진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주목받지 못했고, 북한은 혁명화로 인해 전통이 부정되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 아래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민족의 자금심을 높여 세계화의 문화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치와 규범의 공감대 확산이다. 남북한은 공히 조상숭배의 효 사상, 공동체적 질서, 미풍양속의 명절풍습 등을 가지고 있다. 동양신의 가치가 부상되는 이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세계화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리랑, 단오제, 한신도시 길쌈 등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재는 매우 좋은 본보기다.

넷째, 통일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역사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펼연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역사인식에 차이가 크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여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고 하나님께 뿌여주어 진정한 동행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중심축이다.

다섯째, 남북한 차세대에 대한 인성교육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다. 자유, 정의, 정직, 상호존중의 배려, 인간의 존엄성, 인류 공존의 평화 등 이러한 교육이 남북한 공동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한류, IT문화가 북한으로 확산되었을 때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문화적, 정서적 장벽을 눈 놓듯이 해소할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멜็ด이 온 세계를 흔드는데 어찌 북한 청소년만이 이질감을 느끼겠는가? 차세대들의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자금심을 불어넣고 글로벌 리더로 키워 한민족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오히려 세계평화 정착의 점화기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 남북한의 노력과 합의로 경의선 철도가 뚫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달릴 때 기차역에서 때로는 기차간에서 그동안 고단했던 삶을 이야기하고 위로할 때 민족의 화합과 내일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손들에게는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의 미움과 갈등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정한 마음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한반도 통일의 길이 밝게 펼쳐질 것이다.

잇따른 한빛원전 비리, 주민은 불안하다

한빛(영광)원전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빛원전 A팀장과 B과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또 다시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찾은 고장으로 불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이들을 현지에서 체포, 부산으로 압송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벌여 부품 납품과 관련된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부품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전 비리가 잇따라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원전 부품 납품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감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를 납품비리 혐의가 드러나 그동안 점검·자체 감사가 '생색내기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부품 납품체계와 구매 시스템 일원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리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위조된 부품에 대해서 전면 교체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검찰도 납품 비리 수사를 확대해 밝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조선대 이사회 '밥그릇 싸움'만 할 건가

우여곡절 끝에 연초 2기 법인이사회를 구성했던 조선대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사회 대학 측과 옛 경영진 측으로 양분되면서 이사장을 뽑지 못해 대학 구조조정 대비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선대 학내 자치기구들은 지난 8일 대학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법인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윤창규 교수평의회 의장이 이사장을 선출할 때까지 삐발과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이사회의 과정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입기만 만료된 이사진 구성은 지난 2월 개방이사를 포함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월 개방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해 겨우 관선체제의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신임 이사진 구성은 통해 재도약을 기대했던 대학은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일력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불씨는 신임 이사진 구성 때부터 얼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각 대학은 임학생 감소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사장 자리를 놓고 싸움으로 일관한다면 조선대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새 이사진은 내부 협력과 이해관계를 헤아려고 호남 최대의 사학으로서 대학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아니라면 지역 사회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민들이 눈을 끌고 지켜보고 있다.

## 無等鼓

결국 송나라는 전열을 정비한 초나라와 정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크게 패배했다. 양공 자신도 부상을 입고 이듬해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仁)을 배운 양공을 비웃었다. 그러나 땅자는 이는 진정 어진 이의 자세이며 춘추시대 최고의 임금을 꼽은 5대 안에 양공을 넣었다.

새 정치연합의 기초공천 무공천 여부가 이미 실시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오늘 발표된다. 기초공천 무공천은 당초 여야 합의사항이었으나 여당에서 먼저 약속을 깼다. 때 문에 여당은 총을 들고 선거에 나서지만 야당은 맨손으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다.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결국 죽음에 이른 미생이나 양공의 길을 생각하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는 상황.

몸에 살고 품에 죽는 '몸생甡사'(尸生尸死)의 길을 갈 것인가. 품(form)은 좀 구기더라도 실리를 쟁길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종래 논설고문

## 구강안면 통증

김재형  
전남대치과병원장

주로 얼굴과 머리 부분에 나타나는 통증을 구강안면통증이라고 한다. 구강안면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상태는 셀 수 없이 다양하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 안에 자주 생기는 아프타성 궤양의 경우 발생한 지 보름 정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주로 장년, 노년기의 여성에게 잘 생기는 구강작렬감증후군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이 없어 보이는 혀, 입술 등에 지속적으로 타는 듯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진다. 환자들은 맵고 뜨거운 음식은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중 급성 치수염에 의한 치통은 치과의사가 항상 접하는 통증질환 중 하나이다. 찬 물과 뜨거운 물에 과민한 정도부터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칠 정도로 심한 통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급성 치수염은 환자 자신도 원인 치아가 어디인지 찾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넓은 부위에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며, 면역으로부터 턱의 통증과 두통을 자주 동반하기 때문에 진단이 까다롭다.

삼차신경통은 얼굴에 분포하는 삼차신경지역에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전기기 가흐르는 듯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신경통이다. 일부 삼차신경통 환자들은 치아와 잇몸에 나타나는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치료, 예를

들면 발치나 근관치료 등을 받기도 한다. 턱관절과 귀는 서로 인접하기 때문에 턱관절에 통증과 관절 잡음이 있는 경우 귀 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턱관절에 관절원관(디스크) 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띠'이나 '뽁'하는 소리가 나며,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입을 벌릴 때 '찌'의 또는 '우두둑'하는 소리를 경험한다. 이러한 턱관절 질환을 귀 질환과 구별해야 한다.

가족 날개근은 저작근 중 하나로써 관자근이나 깨물근과는 달리 심부에 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쉽게 앓지 않아 진단 과정에서 많이 간과하는 균육이다. 가족 날개근에 활동성 발동점을 지닌 근막 통증이 있을 때 광대뼈와 턱관절 부분에 연관통을 유발한다. 가족 날개근은 턱뼈가지의 안쪽 면 위에서 앞뒤 방향으로 연결된 삼각형의 균육을 일컫는다.

목 부위의 근막통증은 흔히 턱, 얼굴, 머리 부위로 연관통을 유발한다. 빗목근은 얼굴에 연관통을 둘러한다.

해서는 적정가치대비 저평가됐다는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자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선별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주식이야 저평가됐다는 근거도 있고 제대로 된 개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성장자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임대형 부동산, 예금 등 저상장·저금리 구조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자산들의 경우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요구수익률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말한 '뉴노멀에 적응할 시점'이란 학교를 간파해서는 안 될 시기인 것이다. 성장과정에서는 투자자산의 대부분이 동반 성장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저상장 국면에서는 선택된 일부의 자산만이 성장하는 결과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저상장시대에 선택된 일부의 성장자산을 분별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장에 대한 기대'라는 중요한 요소가 결여된 자산에 투자매력을 가지기 위

## 새로운 성장자산을 찾아라

임현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개최되었다.

2014년 경제전망을 대부분의 회색빛 전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뉴노멀(저성장)' 이란 용어가 키워드가 되면서 '뉴노멀에 적응할 시점'이란 공론이 모아지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로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고 물가 상승률도 1%까지 하락해 장기 저성장의 염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성장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구조가 유사한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한 일련의 과정을 치루면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일본의 1992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의 명목GDP성장률이 2.4%까지 하락한 해였다. 실질성장률이 아닌 명목경제성장률이 2% 중반으로 하락했으나 당시에는 큰 이슈였다. 이전 10년간 일본의 명목GDP성장률은 6.0% 수준이었다. 이후, 일본은 20년간 저성장과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복합 불황기를 경험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2012년 우리나라의 명목GDP성장률은 3.0%였다. 2011년 명목GDP성장률이 5.2%이니 한 해 동안 3%의 성장률이 날아간 셈이다. 이전 10년간 평균 명목GDP성장률이 6.6%였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1992년의 일본과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들이 일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

목이다. 이외에도 제조업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물가상승률 하락, 내수 경기 침체 등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식 복합불황은 아니지만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의 기이는 고속에서 저속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사업영역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업종과 글로벌시장 전체가 사업기반인 전기·전자업종의 주가를 비교하면, 2009~11년까지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2011년 4분기부터 두 개 업종의 주가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2년 중에는 주가 차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주식시장에서도 2012년부터 내수경제의 성장잠재력에만 의존하는 업종의 사업전망이 다른 업종 대비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수준으로 성장동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 '성장에 대한 기대'라는 중요한 요소가 결여된 자산에 투자매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적정가치대비 저평가됐다는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자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선별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주식이야 저평가됐다는 근거도 있고 제대로 된 개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성장자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임대형 부동산, 예금 등 저상장·저금리 구조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자산들의 경우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밖의 또 다른 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가정, 학교, 경찰,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치아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경찰이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의 잘못과 그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과 가·피해학생 모두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밖의 또 다른 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가정,

학교, 경찰,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준영·영광을 우평리

## 학교 밖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대책 마련 급하다

학교 밖에서의 또 다른 폭력,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다. 지난 2013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지난 1차 조사보다 감소하였지만,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7.2%로 증가하였다.